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새벽말씀(편집본)

세월이 물같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보물이다.”

시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시간은 명예다.”

시간 갖고서 명예를 얻을 수 있잖아요.

“시간은 먹는 것이다.”

시간이 있으면 먹는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시간은 세력이다.”

시간 가지고 세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늦으면 못 한다.”

시간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자다.”

그래서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시간을 쓰도록 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60-70이 된 그런 사람들은 성공 가능성이 어렵고 희박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60살, 70살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성공만 있지, 젊은 날의 시간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뛰던 사람은 이미 성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을 리드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래서 이제 젊은 자들과 같이 성공을 이끌어 나갑니다.

제때 하는 자가 누구냐? 제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왜? 제 때에 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제때 안 행하신다는 그런 말은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때 행하신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자다.”

인간이 만일 제때에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도 사람으로서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들, 애인들이니까 “너도 참으로 훌륭하다.” 하실 것입니다.

선생이 여러분을 보면, 참 열심히 충성스럽게 제때에 막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도 보람이 있고, 그렇게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일을 제때에 못하면 아마 하나님이 그냥 택하고 신부니까 좋기는 좋아하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제때에 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제때에 하면 너무 좋다. 제때에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때에 하도록 하라! 무엇을 제때에 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물을 먹어도 제때에 먹잖아요. 지금 이때에 먹으려고 물 떠다 놓은 것입니다. 요새 목이 자꾸 갑니다. 왜 가는가 하니 피곤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전보다 낫습니다. 그 전에는 스트레스가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갔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면서 목이 가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아, 목이 갔으니 하지 말까?’

‘아, 옷이 주글주글한 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옷이 주글주글하면 그냥 입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목이 갔으면 간대로 하는 거야. 그래야 그렇게 지나간 것을 알지. 뭐하러 가식으로 하나. 없는데 뭐하러 있는 체 하나. 뭐하러 가식으로 하나? 그럴 필요가 없지. 없을 때 없는 대로 하면 ‘아, 저렇게 역사가 갔구나. 역사의 주인이 저렇게 하셨구나.’ 알 수 있지.”

맞지요?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라.”

언제 한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목이 쉬면 쉼

대로, 가시면 가신대로, 오시면 오신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금주의 말씀을 연속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권세이다.

시간이 영광이다.

시간이 보물이다.”

시간만 가지면 다 하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더 많이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시간을 많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어서 최대로 초능력적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에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고, 한 자리에서 일을 해. 그게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거야.”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 시간 다 까먹고 나머지 시간은 3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맨날 놀면서 시간 없다고 합니다. 매일 안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틈, 틈, 틈, 틈, 틈! 틈 틈 틈 계속 해야지, 안 하면서 “시간 없어서 못한다. 시간 없어 못한다.” 그러니까.

“틈, 틈, 틈! 계속 틈틈이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된다. 안 하면 결국 못 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 종일 일한 것을 적어 봐 봐요. 놀은 것, 일한 것, 서 있던 시간. 다 적어 봐요.

공부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했는지 시간을 다 따져 봐요.

나는 그것을 일찍부터 다 했습니다. 보니까 안 한 시간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인 바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자기가 계획한 바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위해서 거의 다 투자합니다. 직장에 가는 시간, 직장에서 오는 시간, 직장에서 밥 먹고 까먹는 시간, 그리고 동료들 만나는 시간, 그리고 또 직장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하면, 직장에서 8시간 근무한다면 거의 12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 뭐하는 시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하면 상상도 못하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을 무엇했는가 보면, 공적 시간 딱 따지고 개인 시간 따져놓고 보면, 남을 위해서 쓴 시간을 따져보면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나에게 “사람 만나면 시간 다 뺏긴다. 무조건 방안에 문 처 잠그고, 골방에 처박혀서 하늘 일만 하는 시간이 최고 많아야 된다. 그때가 되면 3배, 4배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해 보았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러면 누구와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잘하면 엄청난 시간을 쓰고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선생도 그래서 돌아다니면 시간 다 쓴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 때 쓰고, 티켓팅 할 때 쓰고, 옮기는데 쓰고, 준비하는데 쓰고, 그리고 거기 겨우 가서, 한 나라 한 교회에 가서 말씀할 때 공적 시간은 불과 서너 너댓 시간을 씁니다.

그 공적 시간 3시간을 쓰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데 쓰고, 뭐하는 데 쓰고, 뭐하는 데 쓰고, 오는 데 쓰다보면 실상 공적으로 외치는 그 시간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서 하면 초능력적으로 10배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령 이렇게 안 하고 각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이 설교를 한다고 쳐 봐요. 그러면 500배 더 시간이 듭니다. 500배가 무엇입니까? 500배도 더 시

간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쓸 때 가장 엄청난 시간이 얻어집니다.

그 전에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쫓아다녔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부산에 가서 설교하고, 끝나면 마산으로 가고, 끝나면 광주로 가고, 끝나면 전주로 가고, 끝나면 대전으로 오고, 끝나면 천안으로 올라가고, 끝나면 청주로 가고, 끝나면 저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가고,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고, 끝나면 강원도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공생애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 생애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한 자리에서 한 번에 팡 원자폭탄 쏘듯이 쏘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못 만납니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그것이 안달이 나고, 속 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습니다. “만나서 무엇 하려고 그러느냐?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우선 해 놓을 것을 해 놓아야지. 사람 먼저 꼬집어 내놓고 보아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사람을 다 모아놓아도 못 만납니다. 앞의 사람이나 가까이 볼뿐입니다. 그것만 다룰 뿐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 다룰 뿐입니다.

가까이 만나서 듣는 사람과, 멀리서 듣는 사람이나 매일반입니다.

“목적을 누가 달성하느냐! 가까이 있어도 못 달성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도 달성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람이 결심하기에 달려있다. 사람이 하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단상 밑에서 누가 듣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더 실감은 있겠지요. 또 멀리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세계에 전파로 쏠 수밖에 없고, 영파로 쏠 수밖에 없습니다. 말쑈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제때에 해당되고, 제때에 제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도 실감이 없지요. “아,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것이야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회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먼 것이고,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것입니다. 가깝다면 가까운 것이고, 멀다면 멀고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멀게 생각하면 너무 먼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어. 육신 썼을 때는 마음에 있다. 육신 썼을 때는 지상에 있다. 육신을 썼을 때는 지상이 하늘나라다.”

인간이 육신 썼을 때는 지상도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2의 하늘나라.

육신을 썼을 때는 천상 그렇게 해야지요.

“육신 썼을 때는 이 지상이 하늘나라다. 지금 너희들이 처한 위치가 천국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는 위치에서 자꾸 천국을 만들어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가면 잘 놀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만들고, 정원도 손질하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것도 심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잘 지냅니다. 믿습니까.

자,

“시간은 금이다. 황금이다. 그리고 권세다. 명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때에 해당되는 일을 하라. 새벽 때는 새벽예배 꼭 드리고, 때가 되었으면 밥을 먹고, 그때 해당되는 일을 하루 종일 해버릇 하도록 하라. 온종일 일을 할 때 그 날, 그 순간에 해당되는 일을 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금주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다. 제때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다. 그게 복이다. 복아 딴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때에,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그때 처한, 그 환경에 처한 일을 하도록 하라. 그
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능력자다!

선생님은 때를 쫓아서 부지런히 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0대 때라고 하는데, 10대 못되었을 때 1살에서 부터 열 살까지인데, 여섯
살, 일곱 살 열 살 때까지 때를 쫓았습니다.

내가 여섯 살 때부터 열 살 때까지 가장 큰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압니까?

내가 큰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섯 살에서 열 살 때까지 참 큰일을 했
습니다. 큰일을 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고요? 여러분들
이 맞춰봐요.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0대 때, 다시 말해서 1살에서 열 살 까지를 0대라고
합니다. 내가 1살에서 열 살 때까지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있는데, 요즘 교
육생들이 맞춰 봐요.

가장 큰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세계 각 나라가 맞춰 봐요.

그리고 10대 때에 또 큰일을 했습니다. 10대 때 큰일을 했습니다. 시험 문
제 하나 더 줄까요? 에이, 한 문제면 족합니다.

10대 때 가장 큰 일은 10대 때 내가 <인생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갈 진로를. 내 인생이 다 하도록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10대 때는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는 40을 불혹이라고 했는데, 나는 10대 때에 벌써 길을 찾아가기 시작
했습니다.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10대가 되면 길을 발견해야 하는데, 아직도 20대가 되었어도 길
을 못 발견합니다. 인생 길, 자기 갈 길을 못 발견합니다. 30대도 발견 못하
고, 40대에 가까운 사람들이 길을 못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섭리에 와서도... 노래도 있습니다.

“섭리 길 왔어도 인생길을 못 찾아서 아직도 방황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

워. 아~ 긴 밤은 깊어간다”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섭리사에 왔어도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결정 못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20대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20대는 벌써 대단한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 목적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닦고 깎고 하는데 아주 극적인 일을 했습니다.

30대는 출발을 했습니다. 30대는 그 일을 출발했습니다.

선생은 34살 때에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34살부터 살았으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했습니다.

“야, 맡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사상과 사고를 가져야지.”

20대 때 예수님의 사상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상과 정신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단 받고 나에게 배워야지.”하셨습니다.

다 배우고 34살 때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33살까지 일했는데, 34살부터는 어떻게 살고 싶었습니까? 그 살고 싶었던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나머지 육신 쓰고 할테니까.”

그래서 34살부터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다른 비진리를 외친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교주다.” 했습니다. 교주는 맞습니다. 내가 <교주>입니다. <가르치는> <주인>이니까. 새로운 역사를 가르치는 주인이니까. 역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께 “잡년, 잡놈들이 나를 보고 매일 미쳤다고 합니다. 동네방네 사람들이 밥만 쳐먹으면 나를 미쳤다고 하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미친 것 맞아.” 하셨습니다.

“나, 미쳤습니까?”

“응. 미쳤어. 너, 나 사랑하는 데 미치고, 나에 대해서 미치고, 그리고 종교에 미쳤잖아. 그러니까 나와 대화가 되지. ‘미쳐서 왔다. 아직 미쳐 못 왔다.’ 한다. 너는 이미 미쳤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느냐? 나와 같이 대면하기까지 되었지 않았느냐. 미쳤다. ‘아직 거기에 못 미쳤다. 미쳤다.’ 그렇

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주도 맞잖아요. 종교를 시작하고,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나쁘다 하는 것입니다.

“동무, 동무!” 합니다. 그런데 동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동무야, 오너라. 나와 같이 놀자.” 그런데 이것을 북한 사람들이, 노쓰 코리아(North Korea) 사람들이 쓰니까, 나쁜 사람들이 쓰니까 “싫다. 나쁘다.” 하지,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권 세계는 ‘동무’ 라고 많이 하고, 우리는 ‘친구’라고 바꾸었습니다. 같은 동료, 사역자가 동무입니다.

이와 같이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칼도 의인이 쓰면 좋게 써먹지만, 악인이 쓰면 칼도 악하게 써먹습니다. 악인들이 쓰면 모든 것을 나쁘게 써먹고, 의인들이 쓰면 모든 것을 좋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보면 하나님을 보는 관도 다르고, 그리고 악인들이 볼 때의 관이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펴 왔습니다.

그래서 40대에는 “여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봐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 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는 “저 사람 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봐라. 여봐라.”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역사를 폈습니다.

“나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의 가는 길을 같이 가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러니다. “나 떠나가서 다른 것 해 봤자 뭐 했느냐? 뭐 했느냐?”

내가 이 뜻을 벗어나서 월명동에서 농사짓고 살았다면 뭐 했겠습니까? 노래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소쩍새 슬피 우는 그 월명동 산골짜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결혼했으면 애를 낳았을까요? 애 낳았겠지요.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결혼관은 항상 접는 것을 가졌었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지금 그냥 무엇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계획이 없겠지요. 왔다 갔다 하고, 농

사짓고 살았겠지요. 석막리 사람들과, 월명동 사람들과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러내서 인생을 멋있게 살게 만들고, 환난과 핍박을 스릴 있게 겪으며 살게 하셨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아마 100배는 더 사는 것 같습니다. 100배는 더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1000년을 살아도 내가 해 놓은 것만큼 못 합니다. 1000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짧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가니까 100배, 1000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살면 100배 1000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생동안 인생들이 살 때 보면, 80살 90살 살았는데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갔다 오고, 애들 낳아서 기르고 그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안 했습니까? 나도 밥 먹고, 자고, 입고, 놀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겨 즐거워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넣고, 그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배, 1000배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섭리사에서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너희들, 하늘나라에 가 보라는 것입니다. 공적 없으면 부끄러워서 못 삽니다. 거기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전도 얼마나 해야 괜찮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몇 명이나 전도를 해야 도대체 하나님께 괜찮을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달란트를 안 남긴 것으로 비유했을 때는 전도를 안

한 사람들은 꼴을 못 보겠다고 바깥에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조가 못 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전도 하나도 못 했다고 그러면 화를 확 냅니다. “어떻게 전도 하나를 못 했느냐? 말하기 싫어.” 하고 전화를 하다가 끊습니다.

“이유가 없다. 환난 때문에 못 했다. 무엇 때문에 못 했다.” 그러는데, 나는 환난 받으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서 다른 나라를 전도합니다.

“야. 심심한데 요즘 누구 없느냐? 야, 독수리 사냥 할 것을 좀 몰아 붙여라.”

“네. 애들이 뺨돌 뺨돌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오다 말았습시다.”

“나에게 그 전화번호 줘.” 하고 전화합니다.

“어, 난데. 너를 전도하려고 그런다. 왜 교회 나오다 말았어?” 교회 나오다가 말았답시다.

“내가 다시 할게. 다시 하여서 나와 함께 하자.” 하면 교회 나옵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안 나오는데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죽었는데 또 살렸습시다. 그러면 전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는데 왜 거기 있으면서 못합니까? 거기 있으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주고 “내일까지 전도 안 했으면 너는 죽는다.” 하면 아마 사람들이 하루에 2, 30명은 할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생땅에다 딱 풀어놓고,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하면 하루에 교회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언어만 통한다면. 한국 같은 데는 100%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못 하냐는 것입니다. 안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한번 가 봐요.

그리고 사람이 몰라서 못 산답시다.

섭리에서 뜨는 데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니, 전도 많이 해서 선생님께 뜨는 영들이 어느 정도로 보여주는가 하니, 섭리사에서 1급짜리가 되려면 보통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은 한 20명 이상 전도하면 선생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딱 머리에 들어와서 좀 크게 보는 사람들은 한 40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100명 선 이상을 넘어갈 때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한 300명씩 전도를 한 사람들로 선생님께서 정말 크게 봅니다. 하늘나라도 아마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일으켰는데, 결국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깨워놓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몇 십 개국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후반전까지는 해 놓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번져 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말은 “백만 명 씩 전도한다. 10만 명 전도한다. 만 명 전도한다.” 하는데, 실제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백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10만 명하겠습니다. 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 놓고 와서 해야지요.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아이템을 가져야 전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번 멋있게 역사를 펴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려면 전도 많이 하는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서 한번 이끌어 봐요. 그렇게 되면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아껴라. 그래야 성공한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은 충

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가진 자들이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애기도 안 한다. 모두 새벽을 깨워 부지런히 하라. 사람들은 모두 쓰지도 않으면서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 한다. 자꾸 그렇게 말하느니 빨리 하라.” 했습니다.

시간을 초능력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 3배, 4배, 5배로 같은 시간을 놓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만 잘 쓰면 1시간 가지고 3시간, 5시간까지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 시간에, 제때, 그 순간에 할 일을 척척 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따라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 썼을 때는 지상이 천국이다. 육신 벗었을 때는 천상이 천국이다.”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들, 흑암들, 어두운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하니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섭리나라를 축복하며 모두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모두 전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안녕!